韓國心理學會誌：臨床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90, Vol. 9, No. 1, 1-19

고등학생의 자살 성향에 관한 연구

우울-절망-자살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분석

신 민 섭　박 광 배　오 경 자　김 중 술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본 연구에서는 718명의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살 생각(Suicidal Ideation)과 우울(Depression), 절망(Hopelessness)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 1에서는 Beck의 이론적 모델의 비교문화적 일반화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우울, 절망과 자살 생각간의 구조적 관계를 LISREL로 분석하였다. 미국에서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절망이 통계적으로 통제된 후에도 우울과 자살 생각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으나, 우울이 통제되었을 때는 절망이 자살 생각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Beck의 이론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분석 2에서는 본 연구에 사용된 우울, 절망을 측정하는 자기보고형 질문지가 자살 생각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경향(Social Desirability)과 오염되어 있는지를 검증하고, 우울과 절망이 대처 신념(Coping Belief)과 상호작용하여 자살 생각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중다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경향이 통제된 후에도 우울과 절망이 자살 생각에 대해 가지는 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본 연구에 사용된 우울, 절망 척도의 구성 타당도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경향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음을 시사해 주는 결과이다. 또한 대처 신념이 우울, 절망과 상호작용하여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대처 신념이 자살 생각에 대한 효과적인 완충 변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성인과 청소년 집단간에 우울, 절망과 자살 생각간의 관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가능성과 이것이 청소년 자살의 치료및 예방에 대해 가지는 시사점이 논의되었다.

모든 자살 행위를 단일한 심리적 과정으로 볼 수는 없으나, 자살의 원인에 대한 연구에서 우울증이 가장 큰 주목을 받아왔다 (Baumeister, 1990). 자살 시도전에 늘 우울감이 선행된다는 사실은 많이 보고된 바 있으나, Beck (1967)은 우울증의 정서적 측면보다는 오히려 인지적 측면(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 혹은 절망)이 자살과 더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제안하였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많은 후속 연구들이 이를 지지하는 결과들을 발표하였다 (Cole, 1988; Emery, Steer, & Beck, 1981; Minkoff, Bergman, & Beck, 1973; Petrie & Chamberlain, 1983; Weissman, Beck, & Kovacs, 1979; Wetzel, Margulies, Davis, & Karum, 1980). 그러한 연구들에서는 우울이 통계적으로 통제되어도 절망-자살간의 상관은 여전히 높게 유지된 반면, 절망이 통제되었을 경우에는 자살과 우울간의 상관이 감소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이러한 Beck의 절망-자살간의 인과적 모델이 과연 청소년들에게도 성인에서와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울 증상의 표현에는 연령과 관련된 변화가 특징적이며

(Weiner, 1982), 특히 청소년기는 성인기에 비해 변화가 많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격동의 시기이며 성취해야할 발달 과업이 많은데 비해 인지적으로 미성숙하므로 그에 따르는 심리적 문제들이 발생할 위험이 많아, 미래에 대한 비관적 생각보다는 우울한 기분에 의해 충동적으로 자살 행위를 보일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Asarnow, Carlson, 및 Guthrie(1987)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Beck의 이론을 검증한 결과, 우울이 통제되었을 때 절망과 자살간의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청소년들에게서는 우울-절망-자살간의 관계가 성인과는 질적으로 다를 가능성을 시사해 주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Cole(1989)의 연구에서도 우울이 절망보다 더 자살 행동과 관련이 있었으며, 이러한 관계에서 성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여학생 집단에서는 우울이 통제되어도 절망이 자살 생각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남학생 집단에서는 우울이 통제되면 절망과 자살 생각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Cole은 청소년들에 있어서 우울이 자살에 대해 가지는 상대적으로 우세한 효과를 청소년기의 특징적인 인지적 요인들이 자살에 대한 절망의 효과를 완화시켰을 가능성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우울-절망-자살간의 구조적 관계에서 발달적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청소년기에는 절망보다는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에 대한 믿음의 좌절이나 대처능력의 저하가 자살에 이르게 하는 가장 위험한 요인으로 논의되었다.

최근들어 우리 나라에서도 청소년들의 자살율이 점차 증가되는 추세로 1988년 3월에서 1989년 2월까지 1년간 자살한 중,고등학생 수가 126명으로 평균 3일에 1명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성림, 1990). 이러한 자료는 청소년들의 자살의 원인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책의 강구가 청소년 정신 건강을 위한 심리학적 연구에서 시급한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청소년들의 적응을 돕고 청소년들의 자살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대책을 도모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자살 생각및 행동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자살 원인은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차원등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아직 어떠한 원인들이 청소년들의 자살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통제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의 첫 단계로 본 연구에서는 자살에 대한 Beck의 이론적 모델이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자살 생각을 예측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지-우울증의 정서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중 어느 것이 더 자살 생각의 예측에 중요한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외국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우울-절망-자살간의 관계에서 남,녀 학생들간에 성차가 있는지를 부가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에서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점이 Beck의 절망 척도의 구성 타당도에 관한 문제이다. 절망과 자살간의 관계를 탐색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Beck의 절망 척도(Beck Hopelessness Scale)와 자살 생각 척도(Scale for Suicide Ideation)에 입각한 것이며(Linehan & Nielsen, 1982), Beck과 그의 동료들은 Beck의 절망 척도가 자살 행동에 대한 예언 타당도가 있음을 경험적으로 증명하였다(Fremouw, De Perczel, & Ellis, 1990). 그러나 Beck의 절망 척도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경향(social desirability)과의 상호관련성(collinearity)에 대한 열띤 논쟁들이 있어 왔으며 (Cole, 1988; Kazdin, Rodgers, & Colbus, 1986; Strosahl, Linehan, & Chiles, 1984), Linehan 등(1983)은 Beck의 절망 척도가 Edwards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경향' 척도와 서로 오염되어 있으므로 Beck의 절망 척도가 자살 행동을 예측하는데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경향이 절망 척도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제거되면 그 예언력이 감소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절망,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경향, 그

리고 자살 생각간의 상호 관련성을 다룬 연구들은 크게 두가지 상반된 결과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a)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경향이 통제되어도 절망이 자살 생각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는 결과이고 (Petrie & Chamberlain, 1983), 다른 하나는 b)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경향이 통제되면 절망과 자살 생각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다는 결과이다(Linehan, 1984). Cole(1988)은 이렇게 상반된 결과들은 그러한 연구들이 서로 다른 피험자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경향 척도를 사용한 데 기인되었다고 보아 이를 규명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를 한 결과, 임상 집단에서는 a)가 비임상 집단에서는 b)가 지지되는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두번째 목적은 Beck의 절망 척도나 자살 생각 척도와 같은 자기보고형 검사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경향과 통계적으로 오염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된 Beck의 절망 척도와 자살 생각 척도는 우리 나라에서는 저자들이 번역하여 처음 사용한 검사들이므로 그러한 척도들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정상 고등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절망이나 우울감이 자살 생각을 이끌 때 어떤 변인이 완충(buffer)작용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는 자살에 대한 예방적 조치나 치료적 개입을 계획할 때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리라 생각되는 바, 대처 신념(coping belief)이 자살 생각과 부적으로 상관이 있으며(Asarnow et al., 1987), 절망이나 우울이 자살 생각을 이끄는데 있어서 이를 방지시켜주는 한 변인으로 자기 효능감이나 대처 신념과 같은 인지적인 요인이 중요하다는 선행 연구 결과(Holden et al., 1989)에 근거해서, 대처 신념이 자살 생각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인 완충 변인(상호작용 변인)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세번째 목적이다.

방 법

피험자

서울의 강남, 강북에 위치한 남,녀 3개 고등학교 1, 2, 3학년생 718명(남자 375명, 여자 343명)에게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이들 중 1학년이 279명, 2학년이 287명, 3학년이 142명이었는데(10명은 학년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았음), 질문지를 실시한 시기가 대학 입시를 약 2달 앞둔 때여서 3학년 학생들의 수업 시간에 질문지를 실시하는데 협조를 얻기가 어려워 3학년 피험자 수가 1, 2학년에 비해 적게 되었다. 표집 대상은 인문계 주간 고등학생으로 회수된 질문지중 결측치가 있는 자료를 제외한 673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조사 도구

본 연구에서는 각 개인의 배경 자료및 우울과 절망, 그리고 자살 생각을 측정하는 질문지들이 사용되었다. 우울 척도로는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CDI; Kovacs, 1981)와 Zung Depression Inventory(ZDI; Zung, 1965)가 사용되었다(부록 1). 이 검사들은 우울증 연구에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CDI는 Beck Depression Inventory(BDI)의 아동용 변형이다. 절망 척도로는 Kazdin Hopelessness Scale for Children (KHPL; Kovacs, Rodgers, & Colbus, 1986)과 Beck Hopelessness Scale(BHPL; Beck & Weissman, 1974)이 사용되었다. KHPL은 아동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나 절망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17문항으로 된 검사로, 각 문항들은 '예', '아니오'로 대답하도록 되어 있다(부록 2). BHPL도 역시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를 평가하는 측정 도구로 20문항으로 이루어진 '예', '아니오'로 대답하는 검사이다(부록 3). 또한 자살에 대한 생각을 측정하는 도구로 Beck의 Scale for Suicide Ideation(SSI; Beck, Kovacs, & Weissman, 1979)이 사용되었는데, SSI는 원래

임상 면접을 통하여 임상가가 평정하는 3점 척도로 된 19문항으로 이루어진 검사이나, 본 연구에서는 많은 피험자들을 일일히 면담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가능한한 원래의 문항에 충실하게 자기보고형 질문지로 이를 변형시켜서 사용하였다(부록 4). 자살에 대한 생각이 반드시 자살 시도를 이끌지는 않으나 이것이 이후에 보일 자살 행동의 중요한 예언 지표가 될 수 있으며(Beck et al., 1979; Simons & Murphy, 1985), SSI가 자살 위험에 대한 임상가의 평정과 높은 상관이 있음이 보고되었으므로(Beck et al., 1979), 본 연구에서는 자살 생각의 심각성을 SSI로 평가하였다. 이외에 Beck의 절망 척도, 우울 척도들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경향과의 상관 관계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MMPI에서 추출된 39문항으로 이루어진 Edwards(1957)의 Social Desirability Scale(SDS)을 실시하였으며, 대처 신념은 Reasons For Living Inventory(RFL; Linehan, Goodstein, Nielsen, & Chiles, 1983)로 측정 하였다. RFL은 자살 생각이 들 때 이를 행동에 옮기지 않도록 하는데 중요한 요인들을 측정하기 위해 Linehan등이 개발한 척도로써 6가지 하위 척도-생존및 대처 신념, 가족에 대한 책임, 자식과 관련된 걱정, 자살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비난에 대한 두려움, 도덕적 반대-로 구성된 48문항으로 이루어진 검사이다. 이들 중 '생존및 대처 신념'에 관한 하위 척도가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 삶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에 대처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인생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는 신념들과 관련된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RFL의 '생존및 대처 신념'에 관한 하위 척도(28문항)를 사용하여 대처 신념을 평가하였다(부록 5). SDS와 CDI를 제외한 질문지들은 저자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번역한 것으로 본 연구에 포함된 피험자들에게서 산출한 모든 질문지들의 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DI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86이었고 ZDI는.77, KHPL는 .87, BHPL는 .81이었고 SSI의 신뢰도 계수는 .87이었다. 또한 SDS의 신뢰도 계수는 .79였으며 RFL의 신뢰도 계수는 .87이었다.

절 차

7개의 질문지들은 피로나 이월 효과(carry-over effect)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작위로 배열하여 한데 묶어서 제시하였는데, 해당 고교의 담임교사가 학급 단위로 수업 시간 중에 이를 학생들에게 실시하였다. 질문지에 대한 응답을 완료하는데 약 한시간 가량이 소요되었다.

결 과

모든 척도들의 평균치상에서 남,녀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표** 1).

표1. 남녀별 CDI, ZDI, BHPL, KHPL, SSI, SDS, RFL 점수의 평균치

	남		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 편차)
CDI	14.04	(7.42)	14.67	(6.68)
ZDI	26.94	(3.84)	28.05	(3.84)
BHPL	24.99	(4.72)	23.85	(3.81)
KHPL	21.23	(3.48)	20.70	(2.88)
SSI	9.37	(6.56)	10.05	(6.38)
SDS	60.86	(6.02)	60.52	(5.89)
RFL	33.36	(4.93)	33.50	(5.04)

분석 I

전체, 남, 녀 집단에 대해 각각 우울, 절망, 자살에 대한 생각 간의 상관행렬표(correlation matrices)를 구하였고 이를 Linear Structural Relationships(LISREL)(Joreskog & Sorbom, 1986)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자살에 대한 Beck의 이론적 모델을 검증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측정치들로 부터 3가지 요인이 설정되었다. 즉, CDI와 ZDI로부터 '우울 요인'이, BHPL과 KHPL로부터 '절망 요인'이' 그리고 SSI에 의

해 '자살 요인'이 설정되었고 전체, 남, 녀 집단 각각에 대해 3개의 구조 모델이 검증되었다. 우울과 절망이 잠재적 독립 변인이었고 자살생각이 잠재적 종속변인이었으며, 3개의 모델에서 두개의 잠재적 독립 변인(우울과 절망)은 서로 관련된 것으로 가정되었다. 모델 1(준거 모델)에서는 우울과 절망의 잠재변인으로부터 자살간에 2개의 경로(Path)가 설정되었으며, 모델 2에서는 절망과 자살간에 오직 한 경로만 설정되었고 우울과 자살간에는 경로가 설정되지 않았다. 모델 3에서는 우울과 자살이 서로 관련된 것으로 경로가 설정되었고 절망과 자살간에는 경로가 연결되지 않았다.

LISREL 분석을 위하여 사용된 우울, 절망, 그리고 자살 생각간의 전체, 남,녀 집단의 상관행렬표와 표준편차는 **표 2,3,4**에 제시되어 있으며, 분석된 자료는 변량-공변량 행렬표(variance-covariance matrices) 이다. 본 연구에서 가정한 구조 모델과 각 잠재 변인들간의 경로 계수를 도식화한 것은 **그림 1**과 같다. 경로 계수및 합치도 지수들은 **표 5**에 요약되어 있는데, 각 척도 점수들이 정상 분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중치를 준 최소자승 방법(weighted least square method; Brown, 1984)을 사용하여 계수 및 합치도 지수를 산출하였다.

표2. LISREL 분석에 이용된 상관행렬표(전체 집단, N=680)

	CDI	ZDI	BHPL	KHPL	SSI	표준편차
CDI	1.000					7.09
ZDI	.704	1.000				3.88
BHPL	.544	.521	1.000			4.33
KHPL	.525	.506	.767	1.000		3.21
SSI	.560	.483	.400	.388	1.000	6.48

표3. LISREL 분석에 이용된 상관행렬표(남자 집단, N=354)

	CDI	ZDI	BHPL	KHPL	SSI	표준편차
CDI	1.000					7.42
ZDI	.692	1.000				3.84
BHPL	.584	.602	1.000			4.72
KHPL	.545	.574	.785	1.000		3.48
SSI	.514	.419	.414	.379	1.000	6.56

표4. LISREL 분석에 이용된 상관행렬표(여자 집단, N=326)

	CDI	ZDI	BHPL	KHPOL	SSI	표준편차
CDI	1.000					6.68
ZDI	.722	1.000				3.84
BHPL	.513	.478	1.000			3.81
KHPL	.514	.465	.735	1.000		2.88
SSI	.614	.550	.409	.392	1.000	6.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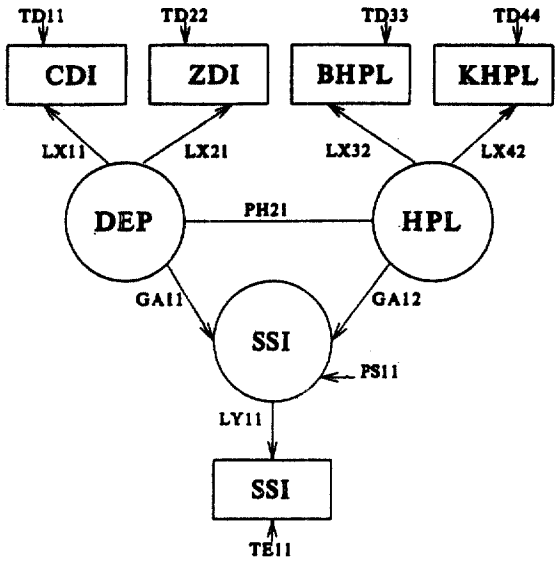

그림1. 구조 모델과 각 경로 계수의 도식

잠재변인(○으로 표시)에 대한 약호 :
DEP ; 우울(잠재 독립 변인)
HPL ; 절망(잠재 독립 변인)
SSI ; 자살 생각(잠재 종속 변인)
LX ; 잠재 독립변인의 요인 부하
LY ; 잠재 종속변인의 요인 부하

측정변인(□으로 표시)에 대한 약호 :
CDI, ZDI ; 우울 척도들
BHPL, KHPL ; 절망 척도들
SSI : 자살 생각 척도
GA ; 경로 계수
TD, TE ; 오차 변량

검증된 모든 LISREL 모델에서 잠재변인들에 단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잠재 독립변인들의 변량을 1에 고정(PH11=1, PH22=1) 하고 잠재 종속변인의 경우에는 그것의 변량이 관찰된 종속변인과 같도록 고정(LY11=1, TE11=0) 하였다. 모델 1(준거 모델)은 전체 집단에 대한 χ^2 goodness of fit test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chi^2(3)=.17$, 남,녀 집단에 대한 χ^2 test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5 참조). 이러한 결과는 모델 1이 관찰된 자료에 잘 합치됨을 나타내준다. 전체 집단의 GFI도 역시 모델 1이 관찰된 자료에 매우 적합하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모델 2에서는 우울과 자살간의 경로 계수 (GA11)를 0으로 고정시킨 후 검증하였다. 이것은 우울이 자살에 대해 가지는 효과는 모두 절망에 의해서 매개되는 간접적 효과임을 가정한 것이다. 전체, 그리고 남,녀 집단에 대한 χ^2 goodness of fit test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chi^2(4)=27.55$, $\chi^2(4)=19.87$, $\chi^2(4)=16.53$, 이러한 결과는 모델 2가 관찰된 자료에 잘 합치되지 않음을 나타내준다. 더군다나 모델 2 분석에서는 여학생 집단에서 변량에서 0보다 작은 수치가 산출되었으므로 (TD22=−11.31) 이것은 모델 2에 심각한 결함이 있으며 절망−자살간의 경로가 적절하지 않음을 나타내주는 증거이다. 모델 3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절망과 자살간의 경로 계수 (GA12)를 0으로

표5. 잠재 변인들의 경로 계수및 χ^2 검증값

경로계수	전체			남			여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1	모델2	모델3
LY1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LX11	6.09	5.21	6.13	6.04	6.03	6.20	5.86	4.36	5.86
LX21	3.11	3.19	3.09	3.16	2.70	3.07	3.12	4.10	3.12
LX32	3.86	3.85	3.89	4.30	4.10	4.40	3.27	3.19	3.27
LX42	2.74	3.13	2.76	2.91	3.16	2.96	2.48	2.88	2.48
PH21	0.71	0.71	0.70	0.78	0.93	0.76	0.68	0.64	0.68
GA11	4.24	0.00+	4.10	4.65	0.00+	3.99	4.41	0.00	4.44
GA12	-0.19	2.54	0.00+	-0.87	4.33	0.00+	-0.01	1.84	0.00+
PS11	24.38	15.84	24.85	25.76	30.89	28.05	21.01	5.75	21.04
TE1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TD11	13.04	11.45	12.53	18.59	19.92	16.91	10.12	10.02	10.09
TD22	6.79	0.44	7.07	7.26	5.10	8.70	5.87	-11.32	5.89
TD33	3.83	6.40	3.90	3.56	7.77	3.79	3.80	6.41	3.81
TD44	2.01	6.05	2.06	1.89	1.63	2.10	2.64	9.96	2.64
χ^2	0.17	27.55	0.20	0.40	19.87	0.58	0.02	16.53	0.03
df	3	4	4	3	4	4	3	4	4
p	0.982	0.000	0.995	0.949	0.001	0.965	0.999	0.002	1.000
GFI	0.999	0.921	0.999	0.999	0.926	0.998	1.000	0.949	1.000

+고정된 계수(fixed parameter)

고정시켰다. 전체와 남,녀 집단 모두에서 χ^2 goodness of fit test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므로 $\chi^2(4)=0.20, \chi^2(4)=0.58, \chi^2(4)=0.03$, 모델 3도 역시 관찰된 자료에 잘 합치됨을 나타내준다. 그런데 모델 1(준거 모델)과 모델 3간에는 서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chi^2(1)=0.03$, 모델 3이 df가 더 크므로 모델 1보다 더 간단한 모델 (*parsimonious model*) 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 2

다음으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경향(SD)이 통제되었을 때도 절망이나 우울 척도 점수가 자살 생각을 예측하는데 효과적인지를 알아보고, 우울, 절망과 자살 생각간의 관계에서 대처 신념이 상호작용 변인인지를 알아보고자 CDI, ZDI(우울척도 점수), BHPL, KHPL(절망척도 점수), SDS(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경향 점수), 그리고 RFL(대처 신념 점수)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SSI(자살 생각 점수)를 종속 변인으로 하여 일련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첫번째 분석에서는 SD효과를 통제하고 자살 생각에 대한 우울과 절망의 직접 효과를 알아보고자 3개의 조(set)가 독립 변인으로 사용되었다. set 1은 SD점수이고 set 2는 CDI, ZDI점수이며 set 3는 BHPL, KHPL 점수이다. 각 조(set)의 독립 변인을 종속 변인에 대해 위계적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6에 요약되어 있다.

SD가 통제되었을때 자살 생각에 대한 우울 변인의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주는 R^2의 증가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2,680)=79.67$, $p<.001$, 절망 변인의 직접적인 효과에 기인된 R^2의 증가분도 유의미하였고 $F(2,680)=27.08$, $p<.001$.

표6. SD가 통제되었을때 독립 변인 set들의 R^2의 증가분

독립 변인	R^2	R^2증가분[a]	F(증가분)
SD	0.173**		
RFL	0.365**		
CDI, ZDI	0.327**		
BHPL, KHPL	0.173**		
CDI, ZDI, SD	0.330**	0.157	79.67**
BHPL, KHPL, SD	0.234**	0.061	27.08**

모든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인은 자살 생각(SSI)임.
a : SD만 독립변인으로 포함된 모델로 부터의 증가분임.
**$p<.001$

이것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우울과 절망 척도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경향과 상관관계를 가지기는 하지만, 그 척도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경향과는 독립적으로 자살생각에 대해서 예측타당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번째 회귀분석에서는 우울, 절망과 자살 생각 간의 관계에서 대처 신념이 효과적인 상호작용 변인(완충 변인)인지를 검증하고자 3개의 set이 독립변인으로 사용되었고-set 1은 CDI, ZDI점수, set 2는 BHPL, KHPL점수, set 3는 RFL점수- 종속변인은 SSI점수였다. 각 set의 독립변인을 종속변인에 대해 위계적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7에서의 결과는 RFL로 측정된 대처신념이 자살 생각에 대하여 우울 및 절망과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결과는 우울 및 절망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대처신념에 의해 완충되는 (moderate) 것이 아니라 우울, 절망과 대처신념이 서로 독자적으로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암시한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자살 생각을 예측하는 데 있어 Beck의 이론적 모델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Beck의 이론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자살 생각에서도 우울증의 인지적인 요인이 정서적인 요인보다 더 중요한 관련이 있다면, 대처 신념과 같은 인지적인 기제가 자살 생각에 대한 완충 요인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Cole(1989)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 청소년들에게서도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인 절망(hopelessness)보다는 우울한 정서가 자살 생각과 더 강하게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미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절망이 자살 생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표7. RFL의 상호작용 효과를 위한 R^2의 증가분

독립변인	R^2	R^2증가분	F(증가분)
(1)CDI, ZDI, RFL	0.429**		
(2)CDI, ZDI, RFL, CDI*, RFL, ZDI*, RFL	0.430**	0.001[a]	0.712
(3)BHPL, KHPL, RFL	0.367**		
(4)BHPL, KHPL, RFL, BHPL*RFL, KHPL*RFL	0.370**	0.003[b]	1.566

모든 회귀분석에서 종속 변인은 자살 생각(SSI)임.
a : 모델(1)과 모델(2)의 차이
b : 모델(3)고 모델(4)의 차이
**$p<.001$

Beck의 이론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것은 자살 생각을 이끄는 요인들에서 성인과 청소년들간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청소년기에는 인지적인 요인보다는 우울감 같은 정서적인 요인이 더 자살 생각에 탁월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로 Cole은 청소년들이 가지는 특유의 여러 인지적인 요인들이 자살 생각에 대한 절망의 효과를 완화시켰을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런 요인들 중 한가지는 집을 떠나거나 학교를 그만 두는 것과 같은 외부적인 사건들이 가까운 장래에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며, 다른 인지적 변인으로는 '개인적 신화(personal fable)'를 들고 있다. 개인적 신화는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믿음으로서, 그들은 특별하고 운이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이 자기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Elkind, 1967, 1985; Lapsley, 1985; Lapsley & Murphy, 1985). 청소년기에는 성인들과는 달리 직접적인 문제해결을 통해서 좌절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청소년기 특유의 개인적인 신화가 자살 생각을 완화시켜주는 한 방편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처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RFL도 개인적 신화를 측정하는 검사라고 보고된 바 있지만(Cole, 1989), 절망과 자살간의 관계에서 대처 신념이 효과적인 완충 변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본 연구 결과는 Cole의 개인적 신화에 의한 설명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지적 요인만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서 발견된 우울과 자살 생각간의 강한 관계를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서구 사회에 비해 가족 구성원들이 복잡한 정서적 유대로 밀착되어 있고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며 학교에서의 성공적인 적응이 장래의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집을 떠나거나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 앞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믿음이나 개인적 신화를 발달시키기가 어려우리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에게서는 절망보다는 우울이 자살생각과 더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가지 가능성으로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들의 경우 이들의 정서적, 심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자살에 대한 Beck의 이론적 설명이 적절하지 않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청소년들은 성인들과는 자살하는 이유 자체가 다르고 자살 생각도 성인과는 상당히 다른 측면을 반영할 수 있다. 성인들에게는 죽음이 고통의 종말을 의미할 수 있으나 청소년기는 원래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이므로 청소년들의 자살 행위에는 비관적인지보다는 우울한 기분이나 충동성등 정서적인 요인이 많이 개입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우울한 기분이나 분노감에 의해 충동적으로 자살 시도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동은 고통스런 현실을 회피하기 위한 것외에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자살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자살을 유발하거나 방지하는 요인으로서 인지적인 기제를 강조하고 있다 (Cole, 1988; Emery, Steer, & Beck, 1981; Minkoff, Bergman, & Beck, 1973).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인지적 이론들에 의해서 한국 청소년들의 자살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으며, 청소년들의 자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서적인 요인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치료적인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들에게는 인지치료적 접근보다는 주변 상황의 호전을 통해 우울 정서를 감소시켜 주고 충동 조절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자살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다. 이것은 대처 신념이 우울 및 절망과 자살 생각간의 관계에서 효과적인 완충 변인이 되지 못한다는 본 연구 결과로도 뒷받침될 수 있다.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의 상실및 뿌리깊은 비관적인 생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서적 요인에 의해 자살 생각이 유발된다면 이것은 치료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오히려 더 좋은 예후를 시사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성인과 청소년들간의 발달적 차이를 이해하고 이것을 치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성인 집단을 포함한 여러 연령 집단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검증적인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SSI는 자살 생각의 유무를 측정하는데 유용한 검사이나 그러한 생각의 심각성을 측정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며, 자살에 대한 생각과 이러한 생각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간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으므로 우울-절망-자살간의 인과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우울증상이나 자살 시도방법에서 성차가 있다는 사실이 많이 보고되어 왔으며(Weiner, 1982), Cole(1989)의 연구에서도 절망-우울-자살 간의 구조적 관계에서 남,녀 학생간에 특징적인 차이가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우울, 절망과 자살 생각의 평균치상에서나 우울, 절망과 자살간의 관계에서도 남,녀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Cole의 연구에서 남자 청소년 집단에서는 우울이 통제된 후 절망이 자살 생각에 대해 가지는 효과가 사라진 반면, 여자 청소년 집단에서는 우울이 통제된 후에도 절망이 자살 생각에 대해 여전히 유의미한 효과를 보여주었다. Cole 은 이것을 남 녀 청소년들의 귀인 양식의 차이로 설명하였는바, 즉 남자들은 실패경험을 노력 부족에 귀인하는 반면 여자들은 그것을 능력 부족에 기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기술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청소년의 자살에 있어서 인지적 요인보다는 정서적 요인이 중요한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 청소년 집단에서는 귀인 양식이나 인지 체계의 차이에 의한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세째,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경향이 통제된 후에도 우울과 절망이 자살 생각에 대해 가지는 효과가 유의미하였으므로 Beck의 절망 척도나 우울 척도들을 사용하여 자살 생각을 예측할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경향이 오염변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절망 척도나 우울 척도가 구성 타당도가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우울, 절망, 그리고 자살 생각들을 평가하는 자기 보고형 검사들이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 사용된 검사들이며, 우울이나 절망 척도가 진정한 '우울'과 '절망'을 측정하고 있는지를 입증해주는 구성 타당도에 대한 심리측정적 연구들이 아직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청소년들의 자살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치료적 대책을 세우는데 고무적인 일일 것이다.

참고문헌

윤성림(1990). 자살 생각 경험을 지닌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Asarnow, J., Carlson, G., & Guthrie, D. (1987). Coping strategies, self perceptions, hopelessness, and perceived family environments in depressed and suicidal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 361-366.

Baumeister, R. F.(1990). Suicide as escape from self. *Psychological Review, 97,* 90-113.

Beck, A. T.(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oebner Medical Devision, Hapner & Row.

Beck, A. T., Weissman, A., Lester, D., & Trexler, L. (1974). The measurement of pessimism: The hopelessness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861-865.

Beck, A. T., Kovacs, M., & Weissman, A. (1979). Assessment of suicidal intention: The scale for suicide ide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343-352.

Browne, M. W.(1984). Asymptotically distribution-free methods for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British Journal of Mathematical and Statistical Psychology, 37,* 62-83.

Cole, D. A.(1988). Hopelessness, social desirability, depression, & parasuicide in two college samp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131-136.

Cole, D. A.(1989). Psychopathology of adolescent suicide: Hopelessness, coping beliefs, and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8,* 248-255.

Edwards, A. E.(1957). *The social desirability variable in personality assessment and research.* New York: Dryden Press.

Elkind, D.(1967). Egocentrism in adolescent. *Child Developement, 38,* 1025-1034.

Elkind, D.(1985). Egocentrism redux. *Developmental Review, 5,* 218-226.

Emery, G. D., Steer, R. A., & Beck, A. T. (1981). Depression, hopelessness, and suicidal intent among heroin addicts. *International Journal of Addictions, 16,* 425-429.

Fremouw, W. J., De Perczel, M., & Ellis, T. E.(1990). *Suicide risk assessment and response guidelines.* Pergamon Press.

Holden, R. R., Mendonca, J. D., & Serin, R. C. (1989). Suicide, hopelessness, and social desirability: A test of an interaction model.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 500-504.

Kazdin, A. E., Rodgers, A., & Colbus, D. (1986). The hopelessness scale for children: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and concurrent validi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 305-315.

Kovacs, M.(1981). Rating scales to assess depression in school aged children. *Acta Paedopsychiatrica, 46,* 305-315.

Joreskog, K., & Sorbom, D.(1986). *Analysis of linear structural relationships by the method of maximum likelihood.* Mooresville, IN: Scientific Software.

Lapsley, D.(1985). Elkind on egocentrism. *Developmental Review, 5,* 227-236.

Lapsley, D., & Murphy, M.(1985). Another look at the theoretical assumptions of adolescent egocentrism. *Developmental Review, 5,* 201-217.

Linehan, M., Goodstein, J., Nielsen., & Chiles, J.(1983). Reasons for staying alive when you are thinking of killing yourself: the reasons for living invento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 276-286.

Linehan, M. M., & Nielsen, S. L.(1981). Assessment of suicide ideation and parasuicide: Hopelessness and social desirabili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9,* 773-775.

Minkoff, K., Bergman, E., Beck, A. T., & Beck, R.(1973). Hopelessness, depression, and attempted suicid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0,* 455-459.

Petrie, K., & Chamberlain, K.(1983). Hopelessness and social desirability as moderator variables in predicting suicidal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 485-487.

Strosahl, K. D., Linehan, M. M., & Chiles, J. A.(1984). Will the real social desirability please stand up? hopeless-

ness, depression, social desirability, and the prediction of suicidal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2,* 449－457.

Weiner, I. B.(1982). *Child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New York: John Wiley & Son.

Weissman, A. M., Beck, A. T., & Kovacs, M.(1979). Drug abuse, hopelessness, and suicidal behavior.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Addictions, 14,* 451－464.

Wetzel, R. D., Margulies, T., Davis, R., & Karum, E.(1980). Hopelessness, depression, and suicidal intention.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41,* 159－160.

Zung, W. W. K.(1965). A self－rating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12,* 63－70.

韓國心理學會誌：臨床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90, Vol. 9, No. 1, 1-19

A Study of Suicidal Idea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

The Structural Relation among Depression, Hopelessness, and Suicidal Ideation

Min Sup Shin (Yonsei University)
Kwang B. Park (ChoongBuk University)
Kyung Ja Oh (Yonsei University)
Zoung Soul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depression, hopelessness and suicidal ideation with high school students. In study 1, to examine the cross-cultural applicability of Beck's theoretical model for suicide, 718 adolescents (375 males and 343 females) were given self-report measures of depression, hopelessness and suicidal ideation and the data were analyzed with LISREL to test the relationship among the above 3 variables. The results showed that correlation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remained significant even when hopelessness was statistically controlled, while correlation between hopelessness and suicidal ideation was reduced considerably when depression was controlled. In study 2, to test whether self-report scales used in the present study is contaminated with social desirability, and whether depression and hopelessness interact with coping beliefs to have an effect on suicidal ideation,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Depression and hopelessness were correlated with suicidal ideation even after social desirability was partialled out, indicating that self-report scales of depression, hopelessness have a construct validity. Depression and hopelessness don't interact with coping beliefs to have an effect on suicidal ideation, suggesting that coping belief is not a cognitive buffer to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Depression-hopelessness-suicide relationship might be qualitatively different between adolescents and adults, which was discussed in terms of therapeutic implication for the treatment and prevention of adolescent suicide.

부록 1

이 질문지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다음의 문항들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당신이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바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문항은 '예', 그렇지 않은 문항에는 '아니오'에 X 표 해 주십시오.

1. 나는 의기소침하고 우울하다. 예 ( ) 아니오 ( )
2. 내가 가장 기분이 좋을 때는 아침이다. 예 ( ) 아니오 ( )
3. 나는 자주 울거나, 울고 싶다. 예 ( ) 아니오 ( )
4. 나는 밤에 잘 자지 못한다. 예 ( ) 아니오 ( )
5. 나는 평소만큼 식사를 한다. 예 ( ) 아니오 ( )
6. 나는 지금도 성(sex)에 관심이 있다. 예 ( ) 아니오 ( )
7. 나는 요즘 체중이 줄고 있다. 예 ( ) 아니오 ( )
8. 나는 변비가 있다. 예 ( ) 아니오 ( )
9. 평상시보다 심장이 빨리 뛴다. 예 ( ) 아니오 ( )
10. 나는 아무런 이유없이 피곤하다. 예 ( ) 아니오 ( )
11. 내 정신은 전만큼 맑다. 예 ( ) 아니오 ( )
12. 늘 하던 일은 별 어려움없이 계속 할 수 있다. 예 ( ) 아니오 ( )
13. 나는 초조하여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예 ( ) 아니오 ( )
14. 나는 미래에 대해 희망적으로 느낀다. 예 ( ) 아니오 ( )
15. 나는 평상시보다 더 짜증이 난다. 예 ( ) 아니오 ( )
16. 나는 무엇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가 쉽다. 예 ( ) 아니오 ( )
17. 나는 내가 쓸모있고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낀다. 예 ( ) 아니오 ( )
18. 내 생활은 보람차다. 예 ( ) 아니오 ( )
19. 내가 죽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더 편할 것 같다. 예 ( ) 아니오 ( )
20. 내가 전에 하던 일들을 나는 아직도 즐긴다. 예 ( ) 아니오 ( )

부록 2

이 질문지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다음의 문항들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당신이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바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문항은 '예', 그렇지 않은 문항에는 '아니오'에 X 표 해 주십시오.

1. 어른이 되면 모든 일들이 더 잘되고 좋아질 것 같기 때문에 나는 어른이 되고싶다.
예 ( ) 아니오 ( )
2. 내 생활을 더 좋아지도록 할 수 없으므로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나을 것같다.
예 ( ) 아니오 ( )
3. 일이 잘 안될 때 나는 항상 나쁜 일만 생기지는 않을것이라고 생각한다. 예 ( ) 아니오 ( )
4.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어 있을지 상상할 수 있다. 예 ( ) 아니오 ( )

5. 내가 정말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시간 여유가 있다. 예 ( ) 아니오 ( )
6. 언젠가 나는 내가 깊이 관심을 가지는 일들을 잘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 ( ) 아니오 ( )
7. 나는 내 인생에서 좋은 것들을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이 갖게될 것이다. 예 ( ) 아니오 ( )
8. 나는 운이 없다. 성인이 되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예 ( ) 아니오 ( )
9. 앞으로 나에게는 나쁜 일만 생길 것이다. 예 ( ) 아니오 ( )
10.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 같다. 예 ( ) 아니오 ( )
11. 내가 어른이 되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것 같다. 예 ( ) 아니오 ( )
12.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것이다. 예 ( ) 아니오 ( )
13. 내가 원하는 것을 결코 가질 수 없으므로 무엇을 원하는 것은 바보같은 일이다. 예 ( ) 아니오 ( )
14. 내가 어른이 되어도 정말로 재미있는 일이 있을 것 같지 않다. 예 ( ) 아니오 ( )
15. 내게 있어서 내일이란 확실하지 않고 혼란스럽게 생각된다. 예 ( ) 아니오 ( )
16. 나에게는 나쁜 일보다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길 것이다. 예 ( ) 아니오 ( )
17.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나는 아마도 그것을 갖지 못할테니까. 예 ( ) 아니오 ( )

부록 3

이 질문지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다음의 문항들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당신이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바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문항은 '예', 그렇지 않은 문항에는 '아니오'에 X 표 해 주십시오.

---

1. 나는 내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이고 의욕적이다. 예 ( ) 아니오 ( )
2. 내 생활을 더 좋아지도록 할 수 없으므로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나을 것같다. 예 ( ) 아니오 ( )
3. 일이 잘 안될 때에는 항상 이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도움이 된다. 예 ( ) 아니오 ( )
4. 나는 내가 10년 후에 어떻게 되어 있을 지 상상할 수 없다. 예 ( ) 아니오 ( )
5.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예 ( ) 아니오 ( )
6. 장래에, 나는 내게 가장 중요한 일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예 ( ) 아니오 ( )
7. 나의 미래는 어두울 것 같다. 예 ( ) 아니오 ( )
8. 나는 내 인생에서 보통 사람보다 좋은 것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 ( ) 아니오 ( )
9. 나는 마음이 편치 않으며 미래에도 아마 그럴 것이다. 예 ( ) 아니오 ( )
10. 나에게 있어서는 과거의 경험이 장래를 위한 좋은 준비가 되었다. 예 ( ) 아니오 ( )
11.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은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다. 예 ( ) 아니오 ( )
12. 나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는다. 예 ( ) 아니오 ( )
13. 나는 미래가 지금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 ( ) 아니오 ( )
14.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것이다. 예 ( ) 아니오 ( )

15. 나는 미래에 대해 큰 신념을 가지고 있다. 예 ( ) 아니오 ( )
16. 내가 원하는 것을 결코 가질 수 없으므로 무엇을 원하는 것은 바보같은 일이다.
예 ( ) 아니오 ( )
17. 나는 장래에 진정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 것같다. 예 ( ) 아니오 ( )
18. 나에게 미래는 막연하고 불확실하게 보인다. 예 ( ) 아니오 ( )
19. 나는 미래에는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예 ( ) 아니오 ( )
20.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나는 아마도 그것을 갖지 못할테니까. 예 ( ) 아니오 ( )

부록4

이 질문지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다음의 문항들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당신이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바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문항의 해당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

1. 살고 싶은 소망은? ( )
   0. 보통 혹은 많이 있다.
   1. 약간 있다.
   2. 전혀 없다.

2. 죽고 싶은 소망은? ( )
   0. 전혀 없다.
   1. 약간 있다.
   2. 보통 혹은 많이 있다.

3. 살고 싶은 이유 / 죽고 싶은 이유는? ( )
   0. 사는 것이 죽는 것 보다 낫기 때문에
   1.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2.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4. 실제로 자살 시도를 하려는 욕구가 있는가? ( )
   0. 전혀 없다.
   1. 약간 있다.
   2. 보통 혹은 많이 있다.

5. 별로 적극적이지는 않고 수동적인 자살 욕구가 생길 때는? ( )
   0. 생명을 건지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미리 할 것이다.
   1. 삶과 죽음을 운명에 맡기겠다.
   2. 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겠다.

6.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나 소망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가? ( )
   0. 잠깐 그런 생각이 들다가 곧 사라진다.

1. 한동안 그런 생각이 계속된다.
2. 계속, 거의 항상 그런 생각이 지속된다.

7. 얼마나 자주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드나? ( )
0. 거의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
1. 가끔 그런 생각이 든다.
2. 그런 생각이 계속 지속된다.

8. 자살 생각이나 소망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 )
0. 절대로 받아 들이지 않는다.
1. 양가적이나 크게 개의치 않는다.
2. 그런 생각을 받아들인다.

9.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통제할 수 있는가 ? ( )
0. 충분히 통제 할 수 있다.
1. 통제할 수 있을 지 확신 할 수 없다.
2. 전혀 통제할 수 없을 것 같다.

10. 실제로 자살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한 방해물이 있다면 ? ( )
(예, 가족, 종교, 다시 살 수 없다는 생각 등)
0. 방해물 때문에 자살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다.
1. 방해물 때문에 조금은 마음이 쓰인다.
2. 방해물에 개의치 않는다.

11. 자살에 대해 깊게 생각 해 본 이유는 ? ( )
0. 주변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 관심을 끌거나 보복하기 위해서.
1.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보복하거나, 현실 도피의 방법으로.
2. 현실 도피적인 문제 해결 방법으로.

12. 자살에 대해 깊게 생각 했을때 구체적인 방법까지 계획 했는가 ? ( )
0. 생각해 보지 않았다.
1. 생각해 보았으나 자세한 것 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
2. 자세하고 치밀하게 생각해 놓았다.

13. 자살 방법을 깊게 생각 했다면 그것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며, 또한 시도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나 ? ( )
0. 방법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고, 기회도 없을 것이다.
1. 방법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기회가 쉽게 오지 않을 것이다.
2a. 생각한 방법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며, 기회도 있을 것이다.
2b. 앞으로 기회나 방법이 생길 것 같다.

14. 실제로 자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나 ? ( )
0. 용기가 없고 너무 약하고 두렵고 능력이 없어서 자살 할 수 없다.

1. 자살할 용기와 능력이 있는지 확신 할 수 없다.
2. 자살할 용기와 자신이 있다.

15. 정말로 자살 시도를 할 것이라고 확신하나 ? ( )
0. 전혀 그렇지 않다.
1. 잘 모르겠다.
2. 그렇다.

16. 자살에 대한 생각을 실행하기 위해 실제로 준비 한 것이 있나? ( )
0. 없다.
1. 부분적으로 했다.(예, 약을 사모으기 시작함)
2. 완전하게 준비했다.(예, 약을 사모았다.)

17. 자살하려는 글(유서)을 쓴 적이 있는가 ? ( )
0. 없다.
1. 쓰기 시작했으나 다 쓰지 못했다; 단지 쓰려고 생각했다.
2. 다 써놓았다.

18. 죽음을 예상하고 마지막으로 한 일은? ( )
(예, 보험, 유언 등)
0. 없다.
1. 생각만 해 보았거나 약간의 정리을 했다.
2. 확실한 계획을 세웠거나 다 정리를 해 놓았다.

19. 자살에 대한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 한적이 있읍니까, 혹은 속이거나 숨겼읍니까? ( )
0. 다른 사람에게 터 놓고 이야기 하였다.
1.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다가 숨겼다.
2. 그런 생각을 속이고, 숨겼다.

부록 5

이 질문지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다음의 문항들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당신이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바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문항은 '예', 그렇지 않은 문항에는 '아니오'에 X 표 해 주십시오.

---

1. 나는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깊은 애착을 가진다. 예 ( ) 아니오 ( )
2. 나는 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예 ( ) 아니오 ( )
3. 나는 아직도 해야할 일이 많다. 예 ( ) 아니오 ( )
4. 나는 앞으로 모든 것이 잘되고 미래에는 더 행복할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 예 ( ) 아니오 ( )

5. 나는 삶에 직면할 용기가 있다. 예 ( ) 아니오 ( )
6. 나는 인생에서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고, 그 모든 것을 경험해보고 싶다. 예 ( ) 아니오 ( )
7. 나는 모든 일에는 최선의 해결 방안이 있다고 믿는다. 예 ( ) 아니오 ( )
8. 나는 삶의 목적, 즉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예 ( ) 아니오 ( )
9. 나는 생을 사랑한다. 예 ( ) 아니오 ( )
10. 아무리 내가 고통스럽게 느낀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안다. 예 ( ) 아니오 ( )
11. 인생은 끝마치기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가치있다. 예 ( ) 아니오 ( )
12. 나는 행복하며 내 생활에 만족한다. 예 ( ) 아니오 ( )
13. 나는 미래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다. 예 ( ) 아니오 ( )
14. 나는 죽음을 서둘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예 ( ) 아니오 ( )
15. 나는 내 문제에 대처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예 ( ) 아니오 ( )
16. 나는 자살한다고 해도 아무 것도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 ( ) 아니오 ( )
17. 나는 살고싶은 욕구가 있다. 예 ( ) 아니오 ( )
18. 나는 자살할 만큼 불안정하지 않다. 예 ( ) 아니오 ( )
19. 나는 앞으로 성취하고 싶은 장래 계획이 있다. 예 ( ) 아니오 ( )
20. 나는 죽는 게 차라리 나을 만큼 내 생활이 비참해지거나 절망적이 되리라고는 믿지 않는다. 예 ( ) 아니오 ( )
21. 나는 죽기를 원치 않는다. 예 ( ) 아니오 ( )
22. 인생은 우리가 가진 전부이며 무가치하지는 않다. 예 ( ) 아니오 ( )
23. 나는 내 삶과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 예 ( ) 아니오 ( )
24. 나는 자살을 함으로써 내 가족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 예 ( ) 아니오 ( )
25. 내가 자살을 하면 나의 가족들이 심한 죄책감과 고통을 느낄 것이다. 예 ( ) 아니오 ( )
26. 나는 내 가족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 예 ( ) 아니오 ( )
27. 내가 자살을 하면 내 가족들은 내가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믿을 것이다. 예 ( ) 아니오 ( )
28. 나의 가족들은 나를 필요로 한다. 예 ( ) 아니오 ( )